

〈陳 稔 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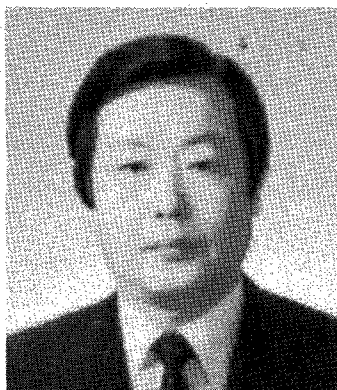
## 親和力 뛰어난 정통 經濟관료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빈틈없는 논리를 차분한 말솜씨로 풀어나간다.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합리적인 성품에 언제나 부드러운 표정이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준다. 선배는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의리와 애정도 남달라 따르는 사람도 많다.

자그마한 체구에도 일처리가 야무지고 매끄러운데다 인상이 총명해 푹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동안 경제개발을 주도해온 경제기획원의 요직을 두루 거쳐 재목으로 꼽혀왔었다. 부인 徐仁貞 여사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약력〉
- 전북 전주출생(51세)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과 졸업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경제기획관
  - 물가정책국장
  - 차관보
  - 해운항만청장
  - 재무부 차관
  - 경제기획원 차관



〈金 時 衡 次官〉

## 外柔內剛 스타일로 상공부 토박이

과묵하면서도 업무는 차분하고 빈틈없이 해내는 실무형이다. 한·미간 최초의 통상현안이라고 불리는 지난 83년 컬러 TV 덤핑수출때 전자국장을 맡아 해결사 역할을 해낸 장본인이다.

民正黨 전문위원과 상공부 1級시절 기획실장을 오래 지내 국회·정당인들과도 두루 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네바 주재 상무관으로 있으면서 가트관련 주요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해 韓國의 對外 무역마찰 소지를 크게 줄였다. 부인 曹圭春 여사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 〈약력〉
- 경북 예천출생(52세)
  - 서울대 법대 졸업
  - 상공부 외국인 투자담당관·주월 상무관·수출진흥과장
  - 공진청 기획관리관
  - 상공부 감사관
  - 민정당 정책조정실 전문위원
  -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제2차관보